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1,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입니다.

우리는 존 머호니의 글처럼 더 많은 소개 자료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5번째 요점, 죄는 동시에 저지름, 누락, 불완전함을 포함합니다. 죄는 행한 행위, 행하지 않은 행위, 잘못된 동기로 행한 행위로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름, 행한 행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창문을 깨고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고, 형을 타했습니다. 거짓말은 죄였습니다. 저는 고의로, 그리고 자유롭게 도덕 규범을 어겼습니다.

반면에 죄는 태만으로서,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잘못입니다. 나아가 불완전함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대신, 잘못된 동기나 태도로 옳은 일을 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 깨진 창문 사건을 예로 들면,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 아빠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저는 올바르게 행동했을 것이지만, 가장 좋은 동기가 없었고, 따라서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그의 도덕적 교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청교도 존 칼훈은 도덕률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선언된 뜻으로, 인류에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고 지시하고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존 칼훈,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문.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률을 공표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통, 주권자이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은 공공연한 행위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가장 높은 도덕 기준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10가지 기본 규범 중 8가지는 구체적인 도덕적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십계명은 도덕적 지침이 되도록 의도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금지는 또한 인간 생명의 신성함의 원칙을 포함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누락과 불완전함의 범주에 속합니다.

각 죄는 다양한 정도로 동시에 저지름, 누락, 불완전함을 포함합니다.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네 번째 안식일 준수 계명과 다섯 번째 부모 권위 존중 계명이 언급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즉, 그들은 따르지 못함으로써 깨집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누락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한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특정한 행동, 말 또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나아가 마음으로부터의 준수 부족, 온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불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예수께서 주신 계명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2:36-40, 마가복음 12:29-31. 사랑은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네 계명에 대한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용문,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닫은 인용문.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동기와 태도를 혼합에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의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진실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계명 1-4? OMG가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조차 흔한데, 우리는 그의 이름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합니까? 죄에는 우리의 성향, 기질, 불순종 행위가 포함됩니다.

모든 죄악적인 행동이나 무행동에는 죄악적인 태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탐욕은 도둑질의 핵심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마음의 탐욕을 따라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가 이전에 거절했던 돈과 옷을 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엘리사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질문을 받았다. 게하시, 어디 갔었어? 선지자를 건드리면 안 돼. 신의 참 선지자를 건드리면 안 돼.

열왕기하 5:25. 살인은 증오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거의 죽을 뻔했고,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7:4, 5. 예수께서는 태도와 행동을 분명히 연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21, 22.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고 선언합니다. 2:11.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3:15. 거짓말쟁이입니다.

4:20 . 마음의 정욕은 간음과 성적 부도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간음 행위 자체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28. 예수께서 정욕을 다루는 데 있어 급진적인 단계를 요구하시는 29절과 30절을 주목하세요. 탐욕을 금지하는 10번째 계명은 태도와 동기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즉시 적용된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소유물을 원하는 것은 이웃과 물론 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는 죄책감과 타락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개인적 선택과 관련이 없는 자연적 악, 재난, 질병입니다. 재앙적 사건은 종종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이라고 불립니다. 자연적 악은 인간의 죄악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지 않지만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결과로 생성됩니다.

로마서 8:19-22. 타락은 궁극적으로 자연적 악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의 역제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자연적 악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사야 45:7. 빛을 형성하고 어둠을 창조하며, 웰빙을 일으키고, 재앙을 창조하는 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악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님이다. 다른 형태의 악은 도덕적 악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이다.

우리는 악의 두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 나쁜, 자연스러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용어와, 깨진 도덕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도덕적 악은 고의로 행동하는 사람이 특정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죄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깨진 법의 동반자입니다. 듣는 것은 죄책감이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책감을 구성합니다.

죄책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책임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비난받을 만한 성격을 잠재적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죄악 행위에 따른 죄책감으로, 죄책감에 반영됩니다. 죄책감의 다른 측면은 처벌에 대한 책임으로, 실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인용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반항하거나 믿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기에 너무 적게 말입니다. 죄책감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서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가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5:19, 야고보서 2:10, 그리고 그것은 Marguerite Schuster의 저서 *The Fall and Sin, What We Have Become as Sinners*, 2004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 노트에서 죄에는 죄책감과 오염이 포함된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머호니가 방금 죄책감에 대해 말한 것을 합치고 거기에 오염, 혹은 전통적으로 죄책감과 부패를 더합니다. 오염은 그것을 말하는 더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둘 다 죄를 다루는 데 정말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죄의 죄책감은, 그가 방금 우리에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책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의 벌을 받을 만하다는 것, 우리의 죄, 즉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실제 죄를 구별합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로, 로마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에게 전가된 죄입니다. 실제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서 5:12에서 19까지, 또는 21까지인데, 얼마나 멀리까지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죄에 대한 관점에서 타락에 대한 창세기 3장의 성경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의 논제가 전개되면서 원죄는 5장에 다시 숨겨져 있고, 1:16과 17에서 복음을 설명하려는 그의 목적을 발표한 후, 1:18에서 3:20까지 그는 원죄를 다루지 않고 실제 죄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실제 죄와 원죄는 모두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죄로 만듭니다. 따라서 죄책감은 도덕적 범주인 부패나 오염과 구별되는, 비난받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행동하든 행동하지 않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인입니다(로마서 3:19, 20).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유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매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8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거룩함과 정의의 성격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정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고, 유죄이며, 비난받을 만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3에서 바울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성상 그들은 다른 인류와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ESV가 하는 것과 정확히 같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는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ESV.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고,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2:5에서 그는 죽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죽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분노의 자식은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만한 자식,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구별하고, 그런데 죄책감과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죄책감이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정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염, 전통적인 단어인 부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적 차원, 죄책감이 있고 도덕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졌고 타락했습니다.

오염은 좋은 단어입니다. 다만 그것을 겉치레로 보지 않는 한요. 여기서 말하는 오염은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본 옛 공산주의 시절의 오염 통제가 있기 전의 체코슬로바키아 마을과 같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것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피부인 흑인의 피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무에 묻은 흙과 오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나무는 검고, 푸른 나무, 집, 그리고 백인인 인간들은 오염으로 피부가 검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염은 바로 그것입니다. 굶어낼 수 있는 작은 겉치레가 아니라 인간의 핵심에 대한 부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6:5에 보면,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맏소사. 갈라디아서 5:19-21은 죄악의 본성, 육체의 행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분입니다. 죄책감과 부패, 또는 죄책감과 오염. 죄책감은 법적 범주입니다.

부패와 오염은 도덕적 범주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창조주와 불화시키고 우리는 그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정죄받습니다.

요한복음 3-36장,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타락, 오염, 우리는 실제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혀는 더럽혀졌고,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더럽혀졌으며,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사악합니다.

Mahoney의 좋은 강의 노트를 계속하면, 죄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성품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성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이사야 6장.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그가 어떤 부분을 골라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거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 시기와 양이 초자연적일 때, 베드로는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 이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뒤에는 분리감으로서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성경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도덕적 순수성입니다. 글쎄요, 그것이 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의 모든 속성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증명은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저는 프로 어부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걸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불,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배의 반대편에 그물을 두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떨어는데, 사실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오어의 죄는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19:10에서 많은 선행을 한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오어는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 개념이라고 썼습니다. 죄는 신에 대한 범법이며, 창조주의 뜻을 피조물의 뜻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피조물의 뜻이 신으로부터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과의 관계가 잘못된 행동에 죄라는 독특한 성격을 부여합니다.

시편 51:4,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빛, 아버지적 사랑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완전해진 것,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빛, 오직 그러한 관점에서만 죄악적인 행위의 악한 속성과 완전한 극악함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적인 행위의 완전한 극악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여전히 은혜 안에 계시며, 우리의 대용품으로 그리스도를 제공하셨습니다.

따라서 죄는 엄청나고 인간의 묘사를 넘어선다. 아멘. 우리는 잘못, 소아성애, 약물 남용, 무의미하고 방탕한 폭력 행위, 그리고 성행위를 우리의 제한된 맥락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잘못된 점을 평가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의 화려함과 관련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도덕적 정직함의 기준입니다.

시편 96:10 과 13, 예레미야 9:24,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도덕적 피조물과의 관계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은 그가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도덕적 척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우리가 망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세상에, 그게 죄의 교리에 대한 연구야. 은혜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거야. 랄프 베닝은 죄에 대한 그의 고전적 저서에서 청교도였다. 역병 중 역병은 죄와 신의 거룩함의 관계를 지적한다. 반대로, 신이 거룩하고, 전적으로 거룩하고, 오직 거룩하고, 전적으로 거룩하고, 항상 거룩하듯이, 죄도 죄스럽고, 전적으로 죄스럽고, 오직 죄스럽고, 전적으로 죄스럽고, 항상 죄스럽다.

창세기 6:5, 인용문 닫기. 근본적으로, 그것은 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급진적인 악입니다. 테드 피터의 강력한 책, 그 중 일부는 당신이 읽고 기뻐할 것이고, 일부는 당신이 읽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 영혼과 사회의 근본적 악, 1994. 강함, 약이 아니라 질병. 죄는 신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근본적 악입니다.

죄의 사악함의 극단은 성경의 계시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납니다. 일련의 측정은 우리가 죄의 변태성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보았듯이, 죄는 우리가 반항한 자의 거룩함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침해합니다. 죄는 창조주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인화된 언어이긴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격과 정반대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우리가 떨어진 높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완전한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인종으로서 도달한 깊이로 측정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가에 따라 측정된다. 그것은 십자가의 태양을 어긴다.

그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놀랍습니다. 이와 함께, 네 번째로, 죄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상을 지닌 자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설교자처럼 들립니다.

그는 여기 메들린에 반복적으로 갔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타락한 인류가 당연히 향하는 목적지로 죄의 어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11~15, 불못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죄의 척도는 그가 그의 대표자들에게 부르는 미완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0억 명이 넘는 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이며, 그들 대부분은 죄 때문에 매일 완전한 영적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를 공유하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지옥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책인 *Faith Comes by Hearing, a Response to Inclusivism*을 모건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포용주의에 반대합니다. 포용주의는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이기는 하지만 이생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건 틀렸어. 배타주의는 옳은 거야. 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어야 해.

그 후, 저는 Transworld Radio의 토크 표현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매일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진정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죄는 신의 창조물에서 사악한 요소입니다.

provatio 로 이해했습니다 . boni , 선의 박탈. 따라서 선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특징짓는다. 창세기 1:4, 10, 12, 18, 21, 25, 31.

어거스틴에게 죄는 그 선의 부정입니다. 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선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창조된 세계의 특징이 아닙니다 .

그의 작품, 신의 도시에서 그는 침묵과 어둠으로 자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우리에게 인지될 수 있고, 침묵은 귀를 통해 인지되고 어둠은 눈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과 어둠은 지각이 아니며 종이 아니며, 부재는 종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지각의 부재, provatio 입니다.

따라서 죄는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선 안에 있는 부재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시, 교부들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1952, 12장, 7절. 나아가 죄는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창조물에서 죄가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자유 선택의 열린 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기생적인 것으로, 창조된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신이 제정한 도덕적 구조를 찬탈하는 부정적인 특성입니다. 미덕의 비슷한 경우에서 기생충은 살기 위해 숙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도덕적 바이러스이며 신의 선한 목적의 맥락에서만 존재합니다.

마호니의 작품은 통찰력이 있지 않나요? 탐구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죄는 세상에 창조주를 형상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9:1~6. 인류는 하나님의 지상 창조물 중 가장 높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성을 퍼뜨릴 책임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공유된 형상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질서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드는 이 고귀한 기능이 이 고귀한 기능에 대해 관찰한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지상의 왕들이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제국의 속주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상에 배치되어 하나님의 주권적 상징이 됩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대표자일 뿐이며,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Gerhard von Rad의 창세기 주석. 복음주의자로서 저는 그가 쓴 모든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석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지성이었고 구약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리더였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아니지만. 창조 이전에 신을 상상하는 인류의 역할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끔찍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첫째, 타락은 전체 창조물을 신의 기본적인 도덕적 설계와 동기화되지 않게 했습니다.

로마서 8:20 창조물은 허무함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원래 의도는 악의적인 폭군이 아니라 자비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물에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은 놀랍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그것이 설계된 목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창조물은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 대신 우리와 상충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창조물을 사로잡는 기대에 대해 설명합니다.

19절. CS 루이스는 그의 시리즈인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를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여기서 인간 군주와 아슬란이 돌아와 나니아를 회복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미지가 타락하면서 사회적 붕괴도 초래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세 가지 인간 문화의 출현 주기는 타락한 세상의 폭력과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도구 제작의 발전과 동물의 길들이기는 이기적인 추구로 바뀌었습니다. 폴 주잇은 인용문에서, 금속을

사용하자마자 살인이 증가 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7절에서 새롭게 정착한 삶의 표시였던 도시가 곧 인간의 야망이 스스로를 넘어선 것을 상징하는 탑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용문 닫기. 폴 주잇과 그의 제자 마르게리트 슈스터.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1996.

회복된 형상을 지닌 자로서 믿는 자들의 과업은 여전히 두 가지 전략적 경기장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창세기 1:28에 근거한 문화적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8. 가족, 교회, 인간 정부, 사업, 농업, 교육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표현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5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높은 것과 추측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케네스 마이어스는 인간이 문화적 사명에 적합하다고 썼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는 문화적 활동 없이는 만족할 수 없었다. 여기에 인간 문화의 기원이 오염되지 않은 영광과 가능성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 문화의 변형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재창조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케네스 마이어스,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푸른 스웨이드 신발. 문화적 사명은 우리가 형상을 지닌 자로서 가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과제가 없는 공허한 호소입니다.

문화를 변형하는 것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혁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대명령에 있지만, 모든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Whew.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다. 로마서 1:18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인용문 닫기.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함이나 도덕적 순수함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의 진노는 단순히 그의 본능적인 거룩한 분노이며 죄에 대한 그의 거룩함에 대한 확고한 반대이며,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로 표현됩니다.

로버트 레이먼드의 *새로운 체계 신학*, 1998.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은 사람들이 삶과 행동에서 전적으로 신이 없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인간은 신을 알지 못하고 그를 멸시합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죄를 낳는 발효액이며, 불의의 무저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을 알지 못하고 멸시받지 않는 곳에 어떤 악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긍정적인 능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신으로부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5:41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는 또한 그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부정적인 요소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임재를 영원히 빼앗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축복받고 은혜로운 임재를 영원히 더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떠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박탈이며, 선하고 축복받은 자의 궁극적인 철수입니다. 죄인들은 신의 부재를 원하는 욕망과 함께 살았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러 에릭슨은 신과 죄인 사이의 교환을 의역합니다.

“죄는 사람이 평생 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떠나가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지옥은 신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대로요.”

인용문 닫기. 밀라드 에릭슨, *Is Hell Forever?* Bib Sac, 1995. 259 및 이후.

또한 Christopher Morgan과 Robert Peterson, 편집자, *Hell Under Fire, Modern Scholarship Reinvents Eternal Punishment*, Zondervan, 2004를 참조하세요. 이 책으로 올해의 책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저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좋은 후보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처벌의 긍정적 부과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불 속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뜻을 어깁니다. 결과적으로 주권자이신 주님은 처벌을 제정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인류의 최후 심판 장면은 같은 장면을 묘사합니다. 왕좌에 앉은 심판관, 그 앞에 서 있는 심판관, 그리고 불못에서의 심판. 그들은 그의 면전에서 쫓거나 불못에서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철회하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아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하시는 유일한 반응은 심판입니다. 베닝은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속죄하고 정화할 수 없는 지옥의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속죄하고 정화할 수 없는 지옥의 악이란 무엇입니까? 죄는 기만적입니다.

죄는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추한 생물로 분장해서 “나는 죄야, 너를 잡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름다운 생물로 분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당신은 웃거나 그의 위선에 대한 비난에 울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가 네 눈에서 티끌을 빼게 해 줘”라고 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면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웃긴 그림인데,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가 돌아서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죠. 눈에 들보가 박힌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유가 가리키는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지어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재빨리 찾아내는 반면, 우리 자신의 큰 잘못은 간과합니다. 꼭 같은 잘못이어야 할까요? 저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처리하고, 그런 다음 형제나 자매를 도우려고 노력하세요. 히브리서 3:12~14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또는 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의인화이지만, 강력한 의인화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문맥상, 히브리서의 저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적인 불순종과 불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조심하세요.

히브리서 3:1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하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어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라.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시편 95편.

맞습니다. 시편 95:7~11. 오늘날 그 단어의 사용.

오늘이라 불리는 한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강박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싶어합니다. 성경 대학에서는 다양한 설교자들이 들어왔고,
꽤 잡다한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하려는 이 특정 친구는 위대한 주석가도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어떤 식으로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교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 그는 이
책이 성경을 언급하면서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거나,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방금 메들린에 갔지? 와우. 우리는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책임을
져야 해. 개인적인 친구나 가족에게.

우리는 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인
우리 중 누구도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 글을 쓸 때 그의 모든 독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여기를 포함하여, 여러분 중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의해 강박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물론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
7: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간사하고 절망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매혹적인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왜 다음 구절이 종종 생략되는지 모르겠다. 나,
주님은 마음을 살피고 정신을 시험한다. 주님은 이해하신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돌아오고, 다음 강의에서 하마르티올로지 교리를 계속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에 대한 이 설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입니다.